

시리아 반군의 편에 선 화이트 헬멧,
화이트 헬멧의 보고를 그대로 전달하는 국제 엠네스티
등은 서구 제국주의와 중동 독재국가들의 전쟁 도구들이다.

정호영 | 출판 노동자

시리아 내전이 7년간 지속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비극들이 지속되었다. 일반적인 전쟁 자체의 참혹상과 난민들 외에도 시리아 반군 중 가장 큰 세력이었던 داع쉬(ISIS)의 잔혹한 반군지역 통치는 무엇보다 큰 비극이었다. 이런 시리아 내전 가운데 시리아 반군의 구호조직인 화이트 헬멧(White Helmet)이 알 자지라 방송과 서구 언론에 의해 시리아 수호천사로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화이트 헬멧은 2016년 9월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받았고 201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이 단체의 민간구호 활동을 기록한 2016년작 영화 '화이트 헬멧'(White Helmets)'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서구의 평화운동 NGO인 국제 엠네스티도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는 화이트 헬멧의 구호 보고를 그대로 퍼 나르면서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였다.

한국에서 서구의 영향 하에 움직이는 언론, 학계, 평화운동 활동가들은 마치 화이트 헬멧과 국제 엠네스티의 한국 지부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평화 운동가들조차도 화이트 헬멧과 국제 엠네스티와 공조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과 학계만이 아니라 시민운동도 서구의 영향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것이 굳어진 관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현재 얼마나 이 관성이 고약하게 부패한 상태로 있는가를 몇 가지 예로서 짚어본 후 시리

아 반군의 편에 서는 것이 악마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직시해 보자.



<좌:학계의 국제전문가가 낸 책의 표지에 있는 알레포 꼬마 다크니쉬. 우: 알레포 꼬마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인터뷰를 하는 알레포 꼬마 다크니쉬의 아버지와 다크니쉬>

1.

2018년 4월 학계의 한 저명한 국제 문제 전문가가 시리아 내전에 관련된 단행본을 냈다. 그러나 이 전문가는 화이트 헬멧, 국제 엠네스티를 그대로 받아 적는 수준이었을 뿐이다. 화이트 헬멧이 시리아 반군을 위해 조작한 유명한 사진 중 하나가 바로 폭격으로 인해 피범벅이 된 채 먼지를 덮어 쓴 알레포 꼬마 다크니쉬였다. 2017년 6월 '알레포 꼬마 다크니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시리아 반군에서 이용당해서 사진 찍혔다고 직접 인터뷰를 했고 자신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 사실은 서구 언론인 텔레그래프 등에서도 보도 되었지만¹⁾ 이 국제전문가는

아사드 정권을 타도해서 이익을 보려는 제국주의와 공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책 표지에다가 사용하였다. 만약 다크니쉬의 진실에 관해 몰랐다면 국제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이트 헬멧에 대한 진실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핑크 플로이드로 알려진 세계적인 락스타 로저 워터스는 2018년 바르셀로나 콘서트에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자신을 돈으로 매수하여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도록 유혹했다고 밝히면서 관객 앞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지금 우리는 화이트 헬멧이 서구가 시리아에 불법적으로 폭탄과 미사일을 떨어뜨리도록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헬멧 같은 사람들의 선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 정부가 시리아 사람들에게 폭탄 투하를 하라고 권해야 된다고 격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거대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정부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보다 선전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²⁾

2.

시리아 반군을 보면 시리아 내전은 이제 아사드 독재에 대한 저항이 될 수가 없다. 비록 그 시작이 아사드 정권에 대한 반대로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그 이후 7년이 지났다. 시리아 반군의 편에 선 나라들을 보자. 2016년에 여성이 첫 참정권을 행사한 왕조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 화이트 헬멧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 세계로 퍼다 나르는 알 자지라 방송을 가진 또 다른 왕조국가 카타르, 수십만 명의 생계 수단을 박탈하고 국회의원

1) <https://www.telegraph.co.uk/news/2017/06/05/new-photos-emerge-omran-daqneesh-boy-became-symbol-aleppo-suffering/>

2) <https://sputniknews.com/world/201804191063717546-white-helmets-lobby-pink-floyd/>

조차도 면책특권을 무시하고 징역을 100년씩 때리는 독재국가 터키, 시리아 민주화를 말할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라들이 시리아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내전이 아니라 이들 국가들과 서구가 경제적으로는 석유를 이유로, 정치적으로는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고 제2의 이스라엘/서구의 꼭두각시가 정권을 잡기를 원하는 이유로 벌인 국제전으로, 이 왕조국가들과 서구 언론들은 오늘도 아사드 타도를 외쳐대고 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된다. 시리아 반군들 중 가장 큰 규모가 컸던 반군이 다에쉬(ISIS)였다. 이들 독재 국가로부터 7년간 군사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시리아 반군의 편에 선 화이트 헬멧, 국제 엠네스티 등이 시리아의 민주화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악마의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시리아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구 제국주의와 이들 중동의 독재국가의 전쟁 개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리아 국제분쟁에서 중동 왕조국가들과 서구의 이해에 복무해온 화이트 헬멧으로 시작되어 국제 엠네스티로 이어지는 거짓의 고리들을 끊어내는 보도들이 이제 한국 주요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³⁾ UN 조사단도 화이트 헬멧과 국제 엠네스티가 계속 해오던 거짓말과 달리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관련된 증거가 없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⁴⁾ 화이트 헬멧에 관한 진실이 계속 드러나자 트럼프조차도 화이트 헬멧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⁵⁾ 화이트 헬멧은 '시리아 민주화'라는 허상의 가면을 쓰고 왕조국가들, 독재국가, 서구에 복무하고 있는 그들의 전쟁도구이다. 그

3) "다짜고짜 물 끼얹어"...11세 시리아 소년의 화학공격 진술. 뉴시스. 중앙일보 국제면 2018.4.27.;"음식받고 화학무기 피해자 연기"..러시아 국영방송 보도. 연합뉴스 2018.04.20.

4) https://sputniknews.com/middleeast/201804251063884207-opcw-chemical-weapons-syria-damascus/?utm_source=https://www.facebook.com/&utm_medium=short_url&utm_content=huNb&utm_campaign=URL_shortening

5) www.telegraph.co.uk/news/2018/05/04/white-helmets-rescue-group-have-us-funding-frozen

리고 국제 앰네스티처럼 화이트 헬멧의 보고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결국 그들의 전쟁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해방세상**



▲ 시리아 주변 지도